

투자목적 및 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신장자산의 대부분을 대형 우량주 중심의 국내 주식에 투자하여 주식의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 리스크관리팀에서 금융공학기법을 활용한 포트폴리오 구성 프로세스 확립, 위험에 대한 사전적인 정보제공 및 운용 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운용업무 및 포트폴리오 위험관리에 대한 지원을 합니다.

펀드내역

펀드규모(NAV) 145억 원

펀드유형 주식형
-주식 편입비 : 60% 이상

설정일

(운용펀드 : 2004년 12월 21일)

- 클래스 A : 2010년 08월 12일
- 클래스 A-E : 2014년 06월 11일
- 클래스 C : 2010년 07월 26일
- 클래스 C-E : 2012년 02월 13일
- 클래스 C-P2(연금저축) : 2015년 08월 20일
- 클래스 C3 : 2010년 10월 25일
- 클래스 C4 : 2010년 10월 25일
- 클래스 C5 : 2010년 10월 25일
- 클래스 S : 2014년 04월 22일
- 클래스 S-P2 : 2017년 05월 23일

벤치마크 KOSPI 100%

신탁업자 SC제일은행

환매대금 지급일

구분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5시 30분 이전	2영업일	4영업일
15시 30분 경과후	3영업일	4영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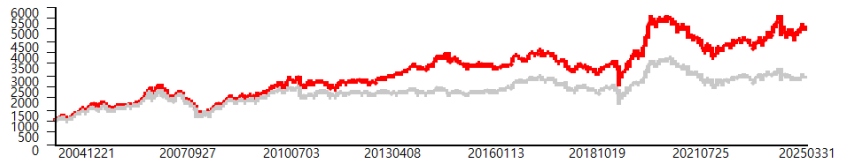
투자위험등급 2등급(높은 위험)

1	2	3	4	5	6
---	---	---	---	---	---

펀드 운용 성과

	누적수익률							설정이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운용펀드	-1.79%	3.85%	2.17%	0.79%	12.42%	3.31%	68.84%	388.45%
클래스 A	-1.91%	3.43%	1.32%	-0.88%	8.76%	-1.76%	55.41%	78.37%
클래스 A-E	-1.88%	3.55%	1.57%	-0.38%	9.84%	-0.27%	59.32%	35.33%
클래스 C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클래스 C-E	-1.92%	3.41%	1.27%	-0.98%	8.55%	-2.06%	54.64%	44.92%
클래스 C-P2(연금저축)	-1.90%	3.49%	1.45%	-0.63%	9.30%	-1.02%	57.35%	16.44%
클래스 C3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클래스 C4	-1.92%	3.39%	1.22%	-1.09%	8.32%	-2.37%	53.76%	63.07%
클래스 C5	-1.92%	3.41%	1.27%	-0.98%	8.54%	-2.06%	54.64%	66.04%
클래스 S	-1.87%	3.57%	1.60%	-0.32%	9.97%	-0.10%	59.74%	42.01%
클래스 S-P2	-1.86%	3.61%	1.68%	-0.14%	10.45%	0.61%	-	50.17%
벤치마크	-2.04%	3.40%	-4.32%	-9.67%	0.17%	-10.03%	41.40%	180.57%

- 운용펀드 수익률은 보수 차감 전 수치입니다.
- 설정 이후 벤치마크 수익률은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기 투자실적은 과거 실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클래스별 설정일이 달라 설정 이후 수익률은 클래스별로 상이하며, 보수 수준 차이로 인해 클래스별 성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진 수익률)
- 최초설정일 이후 전액환매가 된 클래스의 경우 기간별 누적수익률은 재설정되는 날로부터 재설정됩니다.



출처: AITAS 시스템

자산 구성 현황 (2025년 03월말 기준)

<전체>



<주식 업종별>



상위 10개 보유 종목 (2025년 03월말 기준 주식비중)

종목명	업종명	비중(%)	종목명	업종명	비중(%)
삼성전자	전기.전자	17.5	LG에너지솔루션	전기.전자	2.6
SK하이닉스	전기.전자	8.0	알테오젠	일반서비스	2.2
현대로템	운송장비.부품	5.2	셀트리온	제약	2.2
POSCO홀딩스	금속	3.3	한화비전	금융	2.1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운송장비.부품	3.0	하이브	오락.문화	2.1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약속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 영국 프루덴셜 금융그룹은 미국의 프루덴셜(Prudential Financial Inc.)과 영국 M&G plc의 자회사인 Prudential Assurance Company의 관계회사가 아닙니다.

보수 및 수수료

보수(순자산총액 기준)

- 클래스 A : 총 연 1.675% (판매 0.9%)
- 클래스 A-E : 총 연 1.175% (판매 0.4%)
- 클래스 C : 총 연 2.275% (판매 1.5%)
- 클래스 C-E : 총 연 1.775% (판매 1%)
- 클래스 C-P2(연금저축) : 총 연 1.425% (판매 0.65%)
- 클래스 C3 : 총 연 2.025% (판매 1.25%)
- 클래스 C4 : 총 연 1.905% (판매 1.13%)
- 클래스 C5 : 총 연 1.775% (판매 1%)
- 클래스 S : 총 연 1.125% (판매 0.35%)
- 클래스 S-P2 : 총 연 0.975% (판매 0.2%)

(공통사항)

운용 0.72%, 신탁 0.04%, 사무관리0.015%

선취수수료

- 클래스 A: 납입금액의 1.0% 이내
- 클래스 A-E: 납입금액의 0.5% 이내
- 클래스C/C-E: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시장동향 및 운용현황

3월 KOSPI는 전월 대비 2.04% 하락한 2,481.12pt, KOSDAQ은 9.56% 하락한 672.85pt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물가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부각됐고, 이와 달리 유럽과 아시아 증시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국내 증시는 미국의 관세 부과 연기 소식과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 기대감에 힘입어 반등세를 나타냈으나,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과 공매도 재개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전월 대비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음식료, 반도체, 통신서비스 업종이 양호한 흐름을 보인 반면, 전자부품과 의약 업종은 부진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월 대비 1.87% 상승한 1,466.5원을 기록하며 원화 약세를 나타냈고, WTI 기준 국제유가는 전월 대비 2.47% 상승한 71.48달러로 마감했습니다. 동기간 국내 시장에서 기관투자자는 1.28조원 순매수했으며, 외국인투자자와 개인투자자는 각각 2.15조원, 2.02조원 순매도했습니다.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일부 개별주와 가격 부담이 생긴 원전 관련주, 인터넷 및 화장품 업종을 축소하고 방산 업종의 비중을 상향하였습니다. 시장에서 소외되었던 철강, 화학 등에 대한 비중을 일부 상향하여 일부 섹터에 대한 언더웨이트 폭을 축소하는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종목단에서는 폴란드 수출 기대감이 존재한 현대로템과 미국 열원 가격 상승에 따른 가격 인상 효과와 미국 공장을 보유한 휴스틸, 고객사 내 MS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화비전 등이 긍정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 다만, 추가 상승에 따른 부담이 존재한 하이브, 알테오젠, 엠로 등은 부정적인 기여를 보였습니다. 펀드는 업종별로 전자부품, 반도체, 건설 업종이 긍정적으로 기여하였으며 의약, 인터넷, 엔터투어 업종은 펀드 성과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

4월 국내 주식시장은 대외 변수의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높은 변동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발표한 상호관세 조치가 시장 예상보다 강하게 시행되며 수출 중심 업종에 부담을 주는 가운데, 향후 중국 등 주요 교역국의 대응에 따라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국내 정치적 상황에 대한 시장의 경계감이 이어지며, 관련 이슈의 전개 방향에 따라 투자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는 대외 변수에 민감도가 낮은 내수 업종, 이익 가시성이 높은 개별 기업단으로 방어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국내 주식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이슈로 인해 한국의 불확실한 교역 환경에 대한 우려감이 지속되고 있으며, 4월 공매도 재개로 인해 추가 상승폭이 컸던 종목, 고멀티플 종목에 대한 부담감이 점증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5년 1~2월 누적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국내 증시에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단기간은 매도 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2분기부터 가격 인상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2분기부터 실적 상황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전 기조로 전환하고 향후 유럽 지역의 분쟁에 관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대됨에 따라 유럽의 군비 지출 확대 가능성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방산 업체 수혜 가능성이 과거 대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해당 업종에 대한 관심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미국과 중국간의 갈등이 점차 심화되며 중국의 외교 정책 변화 또한 감지되고 있습니다. 과거 중국의 외교 정책은 마음에 들지 않는 국가에게 강압적으로 일관한 전랑 외교였다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에 대한 반감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유화책을 펴는 정책 전환 시도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16년 사드 배치 이후 존재한 것으로 판단되는 한한령 정책의 해제 가능성이 과거 대비 높아진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반사 수혜가 예상되는 미디어/엔터 업종에 대한 관심을 높게 유지할 계획입니다.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 가격 조정폭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의약 업종에 대해서는 높은 비중을 유지할 계획이며 중국의 감산 가능성이 커진 철강 및 태양광 업종에 대해서는 시장 대비 오버웨이트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시장의 우려감으로 인해 펀더멘탈 대비 가격 조정이 컸던 업종 및 종목에 대한 비중을 점진적으로 상향하여 균형감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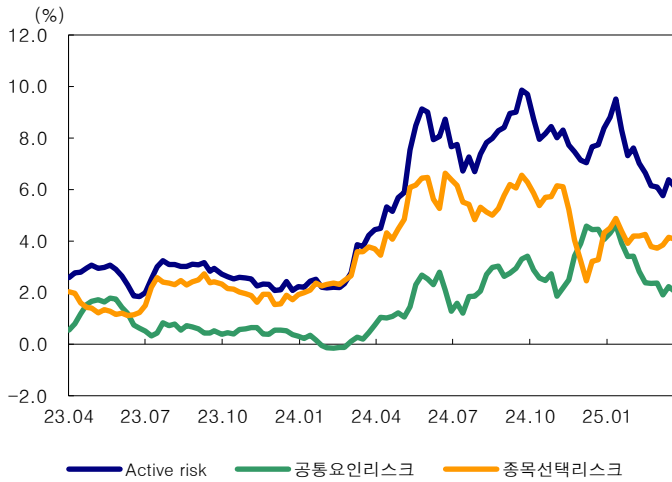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 영국 프루덴셜 금융그룹은 미국의 프루덴셜(Prudential Financial Inc.)과 영국 M&G plc의 자회사인 Prudential Assurance Company의 관계회사가 아닙니다.

리스크 구성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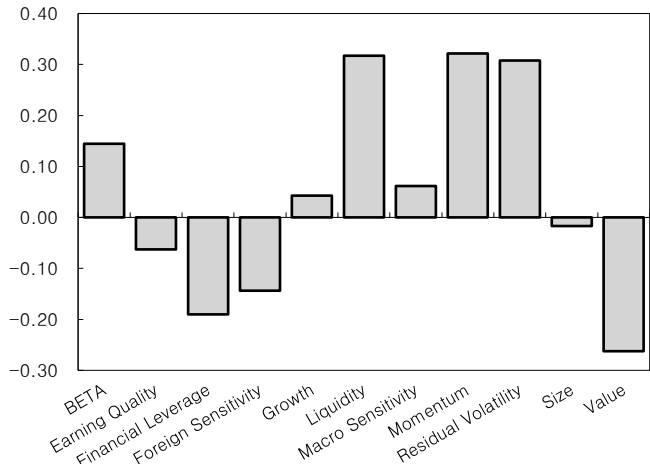
	2025-03-31	2025-02-28
Active Risk ¹	6.30%	6.16%
공통요인 리스크 기여도 ²	2.09%	2.36%
- 스타일 리스크 기여도	1.23%	1.52%
- 섹터 리스크 기여도	0.86%	0.84%
종목선택 리스크 기여도 ³	4.21%	3.79%
베타	0.96	0.96

1. Active Risk는 벤치마크 대비 펀드의 초과 수익률에 대한 변동성으로 공통요인 리스크와 종목선택 리스크로 구분됩니다. Active Risk 수치가 높을수록 펀드가 벤치마크에 비해 적극적으로 운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공통요인 리스크는 스타일 및 업종 리스크와 공통요인간의 상관관계로서, 주식시장 전반에 미치는 리스크를 의미 합니다.
3. 종목선택 리스크는 경영성과, 노사분규 등과 같은 개별기업의 특수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리스크로서 공통요인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 기업 고유의 리스크를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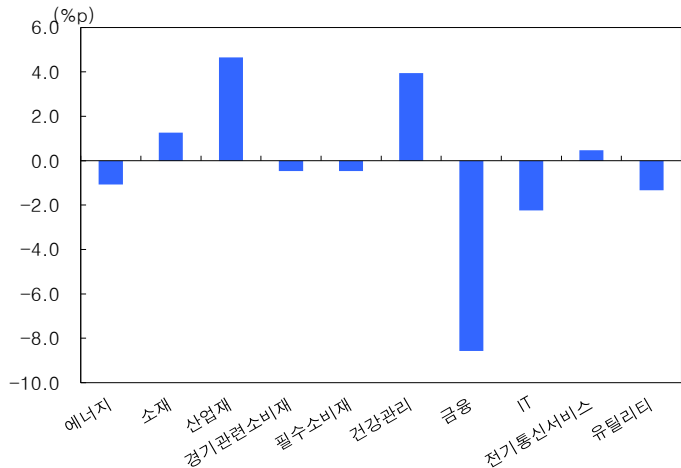
<Active Ris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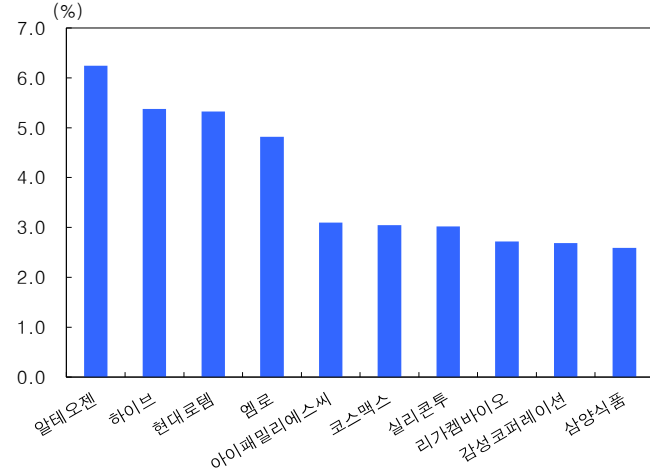
<벤치마크 대비 스타일 비중차>



<벤치마크 대비 섹터별 비중차>



<종목별 리스크 기여도>



분석 결과

*종목별 리스크 기여도는 2월말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 3월말 현재, 업종일등증권1[주식] 펀드의 Active Risk는 6.3%로 전월대비 증가하였습니다.
- ▶ 종목수는 전월대비 14개 종목 감소하여, 81개 종목을 유지하고 있고,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성향은 변동이 없었으나, 벤치마크 대비 '산업재', '소재' 등의 비중 차이는 증가하였고, '건강관리', '전기통신서비스' 등의 비중 차이는 감소하였습니다. 종목 기준으로 본다면, 2월말 기준으로는 '현대모템' 등의 리스크 기여도는 상승하였고 '리가캠바이오' 등의 리스크 기여도는 하락하였습니다.
- ▶ 종목 선택으로 인한 리스크는 전월대비 증가하였고, 종목집중 위험은 적절하게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 ▶ 동펀드는 'Value'보다는 'Momentum'이 높은 스타일의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장면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약속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영국 프루덴셜 금융그룹은 미국의 프루덴셜(Prudential Financial Inc.)과 영국 M&G plc의 자회사인 Prudential Assurance Company의 관계회사가 아닙니다.

